

510 빌 1:19-2:11,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범

오늘은 순서에 따라 빌립보서 1장19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교안을 보시면, 우리는 지난 시간 다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12-26, 투옥된 바울의 근황

- 1:12-14, 바울의 투옥을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진전
- 1:15-17,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상반된 동기와 자세
- 1:18,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바울의 심경

이제 오늘은 그다음 소문단이다.

1:19-26, 투옥된 현실에 대한 바울의 낙관(樂觀)과 초월적 생사관(生死觀)

이번 소문단은 비록 가택연금 상태 가운데 있지만, 이런 현실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는 바울의 낙관과 초월적 생사관을 보여준다.

1장19절上: 이것이 ...

→ 앞 문단을 받는 내용이다. 가택연금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이.

1장19절: 이것이(가택연금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이) 너희의 간구(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 19절에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성도들의 기도와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바울은 투옥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만나게 된 부정적인 상황이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약판이 됨을 알고 있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고난들을 끝까지 견뎌내어 믿음을 지킨다면!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주보 교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13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자.

(마24:13)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구원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구원자의 말씀이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는 바울과 같은 어려움을 견디어 내는 믿음이 잘 보이지 않는다. 사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배신하며 조급하다.

이제 20-23절까지는 자신의 생과 사(生死=사는 것과 죽는 것=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만을 추구하는 바울의 성숙한 신앙을 드러내고 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죽음이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은 자기의 안위에 집착하는, 본문의 바울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다.

1장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지지(특히 현재의 투옥된 처지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늘) 답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 바울은 장차 있을 가이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석방된다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했고, 만약에 사형이 선고된다면?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실로,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일이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것이다.

1장21절: 이는 ★내게(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 본문은 바울의 생각을 초월하는 인생관을 보여주는 유명한 구절이다. 본문에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전부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은, 죽음을 통해 바울의 전부이신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므로 바울은 자신에게 죽음이 유익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와 전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장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 21절에서 바울은, ‘육체가 죽어 그리스도와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유익이 된다’ 고 밝혔다. 이어지는 22절에서는, 반대로 ‘살아있으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자신에게 유익하다’ 고 밝히고 있다.

1장23절: 내가 그 둘(21절의 죽음과 22절의 삶) 사이에 끼였으니(끼어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 23절을 주보 교안을 통해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자.

(빌1:23, 새번역)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23절 상반절을 통해 바울은, 한편으로는 죽어서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이 자신을 사로잡아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3절 하반절을 통해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완전하고 확장된 교제를 누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더욱더 갈망한다는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1장24-25절: 24. 내가 (살아서)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 내가 (가이사에게 무죄 판결을 받고)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성장과)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1장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 26절을 새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자.

(빌1:26, 새번역)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앞선 23절에서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완전하고 확장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자신에게 더욱 유익함을 밝혔다. 그러나 24-26절을 통해,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해서는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더욱 유익하므로, 자신이 살아서 빌립보교회 성도들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미숙한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울 자신을 무죄로 풀려나게 하셔서 그들을 교육할 기회를 주실 것임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다. 한편, 25절 중반절에 ‘기쁨’ 강조표시하자. 25절 중반절의 ‘기쁨’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바울과 함께하게 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으로 인해 오는 기쁨**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이 기쁨 ‘카란’이라는 단어를 ‘믿음에’에 해당하는 ‘테스피스테오스’가 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 곁에 머물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성장한 믿음으로 인해 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도의 진정한 기쁨, 그리고 수준 높은 신령한 기쁨은 성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성화의 증거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충만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1:12-26 문단에서 바울은, 투옥된 자신의 근황을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고,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확고한 신앙관을 피력하였다. 즉, **바울 자신은 가택연금 상태에 처해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상황은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으며 이 때문에 자신은 기뻐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육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도 초월한다는 초월적 생사관을 피력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근황을 알리면서 복음에 투철한 자신의 신앙관을 피력한 바울은, 이제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제시한다. 첫 시간에 문단을 나누는 것처럼, 바울의 권면들은 그 내용을 따라, 1:27-2:30, 3:1-4:1, 4:2-20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1:27에서 2:30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권면 및 모범 제시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1:27-2:30,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에 대한 권면 및 모범 제시

1:27-30, 복음 신앙을 지키기 위한 협력과 싸움의 권면

바울은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총괄적인 권면을 가장 먼저 제시한다. 그리고 이 권면은, ‘오직’으로 번역된 부사 ‘모논’으로 시작된다. 이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만을 해야 한다!**라는 단호한 바울의 권면을 의미한다. 27절 별표하자.

1장27절上: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

→ 우리가 철필로 가슴판에 새겨야 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만을 해야 한다. 바울은 이런 원론적인 권면을 한 다음, 이제 복음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협력할 것과 담대할 것을 권면한다.

1장27절下: ...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굳게)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 27절 하반절은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굳게 서서 복음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는 소식을 듣기 원한다는 내용이다.

1장28절上: 무슨 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

→ 당시 빌립보는 완전히 헬라화된 도시였으므로, 본절에서 대적하는 자들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빌립보시의 이교도들, 타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빌립보는 당시 유대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에게도 공격을 받고 있었으므로, 본절의 대적하는 자는 이들 모두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8절 상반절은 이런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이 아무리 집요하고 강하더라도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기 원한다는 내용이다.

1장28절下: ... 이것이(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는) 그들에게는(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것이라

이제 29-30절은 고난에 직면하여 위축되지 말고 싸울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다. 29절의 고난은, 28절의 대적하는 자들과 관련이 있다.

1장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별표하자.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아무런 고난 없이 은혜만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을 교정할 것을 권면한다. 이처럼 바른 믿음을 견지하는 성도는, 바울의 말씀처럼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도 많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14절 보자.

(요 17:14, 새번역)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른 믿음을 견지하는 성도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바른 믿음을 견지하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1장30절上: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

→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과연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바울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

1장30절下: ...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오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 바울 자신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러한 고난에 직면하여 싸우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싸움을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도 보았고 지금도 들어서 알고 있음도 밝히고 있다.

2:1-4,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한 권면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4장2절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게 두 여성의 다툼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다.

2장1절: 그러므로 ①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②사랑의 무슨 위로나 ③성령의 무슨 교제나 ④공훈이나 자비가 있거든

→ 바울은 2장 1절에서 다툼과 분열을 극복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4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공훈과 자비는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이미 누리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다. 원어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의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교훈하는 것을 의미하며, 두 번째 사랑의 위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위로를 의미한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교제는 먼저는 성령님과 성도 사이의 교통을 의미하며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까지를 의미한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공훈과 자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공훈과 자비를 의미한다. 이 4가지 요소에 대해 한 주간동안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바울은 2-4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3중으로 권면한다.

2장2-4절: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3. 아무 일에든지 다툼(경쟁심)이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 바울은 성도 간의 일치를 3중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첫째는 2절, 한마음과 한뜻을 품으라는 것! 둘째는 3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는 것! 셋째는 4절,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이다.

2:5-11,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범 제시

바울은 1-4절을 통해 성도 간의 하나됨을 위해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권고하였다. 이제 5-11절을 통해 그 권고에 대한 완벽한 본보기, 완벽한 모범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다. 5절 별표하자.

2장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이니★

→ 5절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이다. 5절 목소리 맞추어 다시 함께 읽어보자.

2장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니★

이제 6-8절은, 겸손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한없는 자기 비하의 모범을 기술하고 있고, 9-11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께 놀라운 보상을 하셨음을 기술하고 있다. 참고로, 6-11절 부분은 초대교회에 널리 불리던 초대교회 찬송가를 인용한 것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다.

2장6-8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생각하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종의 모습을) 가지사(취하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8절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와 완전한 순종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자기 부인, 자기 헌신, 자기 희생으로 특징된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자기 부인, 자기 헌신, 자기 희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누가복음 9:23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2장9-11절: 9. **이러므로(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천상과 지상과 지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주인이라) 시인(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바울은 2:1-11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 될 것을 당부하며,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과정, 곧 '승귀' 를 기리는 찬송가를 인용한다.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겸손이다. 바울은 성도들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 겸손의 덕목을 강조하며,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겸손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겸손과 철저한 자기 부인을 본받아 주사랑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른 실천 : 빌립보서 1:19-2:11

- 바울은 **고난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약판이 됨**을 알았다.
- 현대 성도들에게는 바울과 같은 **고난을 견디어 내는 믿음**이 잘 보이지 않는다.
- 바울은 자신의 **삶과 죽음이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를 소망했다.
-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일**이 바울의 관심사였던 것이다(초월적 생사관).
- 2:21에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전부라는 의미이다.
- 바울은 한편으로는 죽어서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교제를 누리 **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성도들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이 자신을 사로잡아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밝힌다.
- 25절의 '기쁨' 은 **믿음의 성장으로 인해 오는 기쁨**을 나타낸다.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성화(聖化)에서 비롯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성화의 증거**들이 있을 때 충만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고 권면한다.
-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바른 믿음을 견지하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 2:8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와 완전한 순종**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자기 부인, 자기 헌신, 자기 희생으로 특징 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 바울은 성도들의 하나 됨을 위해 **겸손의 덕목**을 강조하며,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겸손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 우리도 **그리스도의 겸손의 극치와 자기 부인**을 본받아 주사랑교회의 하나 됨을 힘써 지켜나가자!